

인간, 철학, 그리고 여행

— 정기철 선배님(58회 졸업)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리: 문영식(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수로)
이지연(학부 4학년)

이번 인터뷰는 그야말로 급작스러운 것이었다. 당일 날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터뷰 약속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으레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까’ 하는 궁금증이 나기 마련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어떤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할까’ 하는 부담감에 지긋이 놀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감을 느낄 여유도 없다! 마음 편하게 먹고 분위기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는 거다! 약속 장소인 학교 앞 ‘인터뷰’의 문을 여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양이 푸짐하고 값도 싼 편이어서 ‘인터뷰’는 늘 북적거린다. 그 날도 사람이 꽤나 많았는데,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안쪽에 자리들을 잡고 계셨다. 약간 희끗하신 머리에 마르신 듯한 체구이셨다. 지금은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데 오늘 인터뷰와 내일 있을 학회에 참석을 겸해서 서둘러 올라오셨다고 하셨다.

-과사에서 근무를 꽤 하다보니 이런 저런 논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 선배님 석사논문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지요. 잘 쓰셨다는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입술에 침은 바르셨나?(웃음) 당시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분위기가 그랬지.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었고. 내가 배울 당시 조요한 선생님께서 복직되신 직후라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폐가 안 좋으셔서 강의 도중 칠판 닦는게 늘 내 몫이었어.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께서 지우시려고 하실 때 얼른 나가 지우곤 했지. 최명관 선생님께서도 늘 우리가 쓰는 말 토씨하나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신 분이셨고..

-학창시절 하면, 선배님께서 스승님들을 떠올리시겠네요?

-맞아요.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당시 대학의 분위기는 지금처럼 성적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던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좋은 스승이 계신 곳을 찾아 대학에 들어오곤 했어요. 나도 그랬고.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선생님께 폭 빠졌었지. 한때는 고대철학 전공하려고도 했을 정도였어. 매학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들은 것 같아.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쯤 다들 뭐 하고 있는지..

-리콰르를 전공하셔서 해석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신학으로도 학위를 받으셨지요? 신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중말론>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 두 축은 선생님께 어떤 연관을 갖나요? 선생님께서 갖고 계셨던 문제 의식이 어떻게 접점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신학대학을 먼저 다녔어요. 그리고 철학과를 왔고. 신학과 철학이 내 안에서는 언제나 따로 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인식에도 배경은 있어요. 우선 해석학에서는 인간이 텍스트예요. 특히 시간 이해에 따라 철학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려는 길이 마음에 들었지. 나는 리콰르의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 사람도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청교도 였다가 철학을 공부하고는 신앙과 철학이 대치되는 것 같은 갈등을 해요. 그 사람은 파스칼을 주로 읽었다고 하는데, 해서 어떻게 신앙과 이

성이 상호 대립이 아니라 하나인가 하는 것이 그의 화두가 됐죠. 리콰르에게 매력을 느낀 것도 이런 동질감을 느껴서였어요. 리콰르는 어떻게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능성을 내세웠고, 처음에 신학 박사 논문도 이것과 관련해서 쓰려했지만 지도 교수의 반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호기심에 인터뷰의 목적을 잠시 망각한 나 때문에 선배님께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분위기는 흡사 인터뷰가 아니라 강의시간처럼 되어버렸다.

-아니, 분위기를 왜 이렇게 조성하나요?(웃음)

인터뷰의 본래 목적을 되새기며 선배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었다.

-자녀분은 몇이나 두셨어요?

-셋이에요. 딸 하나에 아들 둘이지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막내가 태어났어요. 가족들은 독일에 남아있어요. 지금 본의 아니게 기러기 아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고민이 좀 됐지요. 처음엔 아이들 모두 데려오려고 했는데, 적응 문제가 걸리더라구요.

막내 아이는 11살인데,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요. 보쿰에는 동네에

나이별로 축구 클럽이 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합도 하고,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있어요. 막내도 클럽에서 아주 열심히인데, 한국에 오면 그걸 못할까봐 걱정이고.. (웃음) 아이들이 나름대로 흐름을 갖고 공부하는데 그 흐름을 굳이 깨고 싶지가 않더군요.



정 기 철

에만 매여있으면 힘들잖아요?

-독일에 계실 때도 여행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요. 가족들과 유럽은 거의 다 돌아다녔죠. 배낭 매고, 텐트만 갖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꼭 여행일지를 쓰게 했는데

그게 분량이 꽤 됐어요. 나중에 책으로도 내 볼 생각이예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겠어요. 학교에 가지거나, 연구하시는 시간에 따로 즐겨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진 찍는 걸 아주 좋아해요.

사진과 여행은 선배님께서 신학과 철학을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로 보시듯 딱 그런 관계였다.

-그럼 여행도 좋아하시겠네요?

여행 이야기가 나오자 선배님께서 의자에 깊숙이 앉아 계시던 몸을 당겨 내시며 돌연 얼굴에 화색을 띄셨다. 그리고는 기다리셨다는 듯,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셨다.

-여행이란 건 가장 좋은 공부예요.

다른 돈은 아껴도 여행에만은 아끼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여행이라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지요. 사람은 살다보면 웬만해서는 자신의 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게되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지요. 여행은 사물을 대하는 다른 방식을 알려줘요. 자신을 이해하도록 해주고, 그런 점에서 철학 공부 못지 않아요. 타인의 이해라는 것도 자신의 틀

-학교에서 한자 배우는 것 보다 여행이 더 좋다는 교육 방식의 실천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옳지요. 나는 수업시간에도 애들에게 여행 간다고 하면 수업은 안나와도 좋다고 해요. 대신 여행 일지 같은 거 가져오면 되요.

-사진 찍으신지는 오래 되셨어요?

-꽤 오래됐죠. 이번에는 사진만 찍을 요량으로 그리스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해석학과 사진 예술이라는 주제도 구상중이에요. 또 나중에는 한국의 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사진으로 찍어 보고 싶기도 하구요.

여행과 사진에 대한 선배님의 열정이 대단하셨다. 언젠가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다들 다른 일정들 때문에 맥주 한잔 더 하자라는 말씀을 사양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웠다.

[철학과 50주년 기념 학술제 및 체육대회]

- 일시 : 2004. 5. 13(목)~2004. 5. 14(금)
- 장소 : 한경직 기념관 소예배실 및 대운동장
- 행사 내용 :
 1. 학술기념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학과장 김광명 교수



최명관 명예교수님의 모습



김기순 명예교수님의 인사말



서양철학분야 박해용 박사의 발표
“승실철학 50주년의 회고와 전망”



신학분야 박홍순 박사의 발표
“탈식민지적 성서 해석”



동양철학분야 김시천 박사의 발표
“동아시아 고전 철학에서 ‘정’을
통해 본 ‘몸’의 현상학”



농구 경기 1



남학우들의 축구 경기



농구 경기 2



릴레이 경기



응원하는 학우들



체육대회 단체 사진



여학우들의 축구 경기



철학과 교수님들

동 문 회

축·하·합·니·다

목창균 동문(44회·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은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어 2004년 9월 1 일부로 취임하게 되었다.

<200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허중호 목사(32회)
- 정영환 목사(34회)
- 손영호 동문(36회)
- 권명달 동문(37회)
- 노용한 동문(42회)
- 진대홍 동문(48회)
- 이승렬 목사(49회)
- 장영호 동문(51회)
- 홍진일 동문(53회)
- 이춘수 동문(53회)
- 지 숙 동문(54회)
- 김선욱 교수(55회)
- 박금희 동문(57회)
- 이상준 동문(57회)
- 황형택 동문(57회)
- 정기철 동문(58회)
- 이주현 동문(65회)
- 이장형 교수(대학원)

감·사·합·니·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 회 비:

- 회 장 단(15만원)
- 임 원(10만원)
-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예금주] 승철동문

우리은행
461-146308-02-001

철 학 과

1. 교수 동정

▶**곽신환** 교수는 5월 22일 한국 동서 철학회와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발표회의에서 “試論 陰陽五行理論在中國古代思想史上的地位與作用”이라는 유충국 교수의 글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광명** 교수(대학원 주임교수·철학과 학과장)는 미다스북스에서 『칸트평전』이라는 역서를 출판하였다.

▶**김선욱** 교수는 5월 22일 한국 동서철학회와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발표회의에서 “정치윤리로서의 평화에 대한 정치윤리적 반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한국 철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사회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김석두 교수의 글에 대한 논평을 했다.

II. 학과 동정

▶철학과에서 3월 25일(목)에 제 10회 송실철학강좌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진교훈 교수가 “윤리학 연구의 방향설정과 그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철학과에서는 3월26일(금)~27일(토) 양일간 용문산 인근 민족 문예원으로 전체 M·T를 다녀왔다.

▶철학과 대학원 2004년 후기 입학전형에서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3명이

합격했다. 박사과정으로 **송인성** 씨가, 석사과정으로는 **김광연**, **신경수**, **이주현** 씨가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었다.

▶대학원에서는 4월 8일 박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 중간발표가 있었다. 이종원(63회)씨는 “인간복제와 책임적 생명윤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해용** 동문(49회)은 돌기둥에서 『철학 용어 용례 사전』을 출판하였고, **신응철** 동문(64회)은 살림출판사에서 『철학으로 문화보기』를 출판하였다.

주소 업데이트

▶**백도형** 교수(송실대 철학과)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9번지 6호
T: 02-763-2579

▶**임상호** 동문(42회·경찰공제회 이사장) 서울시 중구 신당동 193번지 무궁화회관
T: 2235-4666

▶**지속** 동문(54회) 서울시 양천구 목1

동 926-8 성원APT 101-1005
T: 02-2651-4269, 011-356-4269

▶ **윤은주** 동문(64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동부센트레빌 101동
1004호
T: 2069-2614, 011-477-6496

▶ **한준호** 동문(64회) 강원도 속초시 동
명동 338 속초 감리교회

▶ **강신철** 동문(67회)
T: 011-9073-8836

▶ **조찬주** 동문(71회) 서울시 마포구 연
남동 246-1 노블레스 아파트 702호
T: 011-798-6757

▶ **이성준** 동문(72회) 서울시 광진구 노
유동 한강 우성아파트 101동 1206호
T: 033-760-2823

▶ **김은진** 동문(75회) 경기도 구리시 교
문동 225- 22 3층

▶ **정재식** 동문(대학원)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91-69번지 동화연립 202호
T: 017-393-3228

▶ **정광제** 동문(대학원)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인정프린스 아파트
102동 1103호

▶ **곽군** 동문(대학원) 서울시 노원구 상
계9동 1204- 303호

▶ **양진우** 동문(대학원)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61-5
T: 011-763-5661

알 립

1.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간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4호 (2004 여름)
2004년 6월 1일 발행

발행인: 정 영 환
편집인: 김 선 옥
간 사: 문 영 식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su.ac.kr